

4월 선교소식입니다.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부아프리카 선교회 식구들께 안부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보내온 봄 사진 몇 장을 나누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함께 어우러진 봄의 향연을 감상하면서 또 한 계절이 지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잊었던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는 아직도 우기철이 계속되어 바깥에서 하는 많은 일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니 감사하지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4월 소식 드립니다.

I. 탕가신학교 소식

아직 방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5월 5일 두번째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방학 중에는 1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 몇 날 학교 청소를 하고 정원을 가꾸며 학비와 용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매 학기마다 있는 일 이지만 이번 방학에는 특히 인원수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모두 집, 교회가 너무 멀어 학교에 남는 것을 결정한 학생들입니다.

II. 리빙 스톤 중고등학교 소식

1) 학생들 소식

5월 중에 4학년 학생들의 탕가 주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학사일정은 다른 학기(quarter) 보다 짧기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 Pre-form 5 시작

약 9주의 기간으로 올해 7월초에 시작될 고1 학생들을 미리 소집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수준의 20여 명 학생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교사

최근들어 2명의 교사를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학년이 모두 차게 되므로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사입니다. 부분적으로 중학교 수업도 일부 겸하게 됩니다.

III. 학교건축 및 도로 닦기 소식

1) 7월 초 부터 사용하게 될 고등학교 기숙사 남은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일들은 창틀끼우기, 화장실 마무리, 실내외 페인트, 주변 정리 정돈, 학생들 2층 침대 추가분, 옷장, 기숙사 책상 등 입니다. 정말 모두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 교내 도로 닦기 공사는 본관 건물 끝에서 고등학교 기숙사까지 약 100미터, 그리고 정문 안

좌측에서 양호실까지 약 200미터 되는 뒷길을 새로이 확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기분이 확 풀리는 기분입니다.

3) 운동장 평지작업

그동안 운동장 위 아래의 경사가 심하고 돌이 많아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 운동할 때 다치는 일이 종종 있곤 했지요. 때마침 도로 공사때 사용하는 중장비를 렌트할 기회가 있어 3일 동안 교내 도로 작업과 운동장 평지 작업을 했답니다. 지금은 일하는 형제들 10명이 운동장 여기 저기에 파헤쳐진 크고 작은 돌들을 골라내고 더불어 물빠짐 공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하기 힘든 중장비를 동원 할수 있었다는 것 큰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4)말라리아로 힘든 시간을 보낸 Innocent Kanyunu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와 또 병원의 노고로 위기를 넘기고 잘 회복 중입니다. 아직 치료후 마지막 재검사를 하나 더 남기고 있어 다음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건강뿐 아니라 그동안 밀린 학업에도 무리없이 적응해 가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V. 지역교회 건축 계획

하나님께서서는 학교 건축일만 아니라 지역 교회 건축하는 일에도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손길을 통하여 18개의 교회를 건축 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조만간 2곳의 교회가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1) 첫 번째 교회는 탕가 시내에서 약 100km 거리에 있는 Pangani Sakura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탕가신학교 1회 졸업생 Tito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하시는 안문균 목사님 교회에서 헌금하시고, 한종태 목사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2) 두 번째는 리빙 스톤 학교가 위치해 있는 Muheza 지역의 교회입니다. 역시 탕가신학교 2016년 졸업생인 Veronica 사모님이 남편 (타 신학교 졸업)과 함께 목회하는 교회 입니다. 이 건축은 한국 서울의 필동 감리교회를 비롯한 3개 교회의 연합으로 후원하고 최명철 선교사님 내외분께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는 사역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영혼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에 감격 또 감격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V. 두 가지 특별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언제까지나 '하나님 먼저(앞) 우리들은 나중(뒤)' 이라는 겸손을 잃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둘째: 눈에 보이는 건축의 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내적 건축'도 도와주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

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한없는 긍휼 내리시길 간구합니다

2018년 4월 21일

김은래 박윤석 선교사 드림.